금호타이어 노사, 단체교섭 잠정 합의

현 위기상황 공감…한 걸음씩 양보 합의점 도출

오는 26~27일 최종 확정…경영정상화 탄력 기대

금호타이어 노사가 지난해 12월부터 끌어온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경영정상화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타이어는 전날 속개된 20차 본교섭에서 노사가 현재 위기상황에 공감하고 한 걸음씩 양보한 끝에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크게 '설비투자·인력운영', '광주공장 이전 관련', '퇴직연금 중도인출', '성형수당 지급', '단체협약 개정'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내공장 설비투자와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향후 대화를 통해 논의·추진하기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광주공장 이전 문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퇴직연금 중도 인출 한도 상향과 성형수당 지급에도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경우는 '고용세습 논란'이 된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고, 내년부터 만60세 반기말로 정년을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월29일 잠정합의를 이뤘지만 2월13일 치러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었다.

이후 5월17일 새로 선출된 9기 집행부와 교섭을 재개해 한 달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최종 확정은 오는 26~27일 치러지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회사측 교섭 대표위원인 조강조 생산기술본부장은 "현재 회사가 직면한 경영위기 상황을 노사가 공감하고 고민한 결과, 이번 교섭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금호타이어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10분기 만에 실적개선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해외자본 유치 이후 구조혁신과 비용절감 등 각고의 노력을 펼친 결과 2분기부터 흑자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신봉우 기자

전남도의회 농어민수당 기자회견 23일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 정의당)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남대 연구팀, 인체 무해 새 형광물질 개발

납 대신 희토류원소 사용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TV나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면서도 인체에 유해한 납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형광물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전남대 화학공학부 이상현 교수 연구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인체에 유해한 납을 사용하지 않은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소재를 개발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TV나 컴퓨터의 디스플레이는 물론 태양전지에 쓰이는 반도체 물질로, 빛을 전기로 바꾸거나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특성이 있어서 고체 상태 조명, 레이저 등의 산업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연구팀은 비교적 간단한 제조공정에 의해 합성이 가능하고, 극히 미세한 양만으로도 높은 발광율을 구현할 수 있어 선명하고 다양한 색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 합성소재는 기존에 개발중인 소재들이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납을 사용해야 하는 한계를 뛰어 넘은 것이어서 미래 광소자와 디스플레이 유망 소재로 주목되고 있다.

공동연구팀은 다양한 시도 끝에 납을 대신해 희토류계 원소인 이터븀(Ytterbium, 원자번호 70번)를 사용, 고품질, 고균일도를 지닌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소재를 합성하는데 성공했다.

또 이를 활용해 고성능 광검출기 소자를 제작하기도 하는 등 무연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소재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고 더불어 해당 원소재의 응용과 상업화에 획기적인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은홍 기자

민주당 광주시당 시·구의원들

"일본 해외연수 안갑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 취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소속 시·구 의원들이 올해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었던 일본 연수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한국 사법부의 정당한 결정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전 국민적인 분노와 더불어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광주시당 교육연수위원회는 미리 계획된 연수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연수 진행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취소 결정을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교육연수위원회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한 당 차원의 지원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본제품을 사지 않거나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등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국민적 노력도 의미있는 일이다"며 "일본의 만행이 정상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당 소속 시·구 의원들의 일본 연수는 절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번 시·구 의원들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지방의회 차원에서 일본 연수를 취소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동구, 예술의거리 궁동 미로-패트런 운영

광주 동구가 예술의거리 활성화를 위해 '궁동 미로(美路)- 패트런(patron) 스테이션'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궁동예술두레마당(가칭) 정식개소 전 공간홍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패트런(patron, 후원자)과 지역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예술인들의 기업가 마인드를 높이는 예술펀딩 ▲국내·외 미술시장을 주도하는 명사 초청강연 ▲지역작가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네트워킹 ▲작가홍보를 위한 마켓·전시 등을 진행해 지역작가와 후원자 간 네트워크 조성을 꾀하고, 궁동예술두레마당과 지역예술인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서구, 커뮤니티케어 18개동 순회 방문진료

광주 서구가 매주 수요일 의사 진료가 필요한 거동불편 세대에 가정방문하여 진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방문진료사업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18개동 맞춤형복지담당자와 서구보건소가 연계 추진하는 것.

동 순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18개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커뮤니티케어사업 대상자를 사전 발굴하고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실시로 시작된다.

조사 이후에는 의사진료 필요자를 서구보건소에 의뢰하고 의사(보건소장)와 방문간호사, 동 담당(사회복지사)가 함께 대상 가정에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한다.

남구,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희망업소 모집

광주 남구는 글로벌 외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입식 테이블 설치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를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23일 "좌식 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외국인 및 관광객과 노약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할 경우 입식 테이블과 의자 구입비의 50%를 구청에서 제공하고, 나머지 50%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다만 입식 테이블을 2개(좌석 8석) 이상 설치할 경우에 해당하며, 입식 테이블 또한 음식점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면서도 견고해 훼손이 적은 재질로 제작되어야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북구, 제1회 구강보건사업 지자체 평가 우수기관

광주 북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1회 전국 구강보건사업 평가(2018년 평가)에서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상'을 수상해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시행한 이번 평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예방사업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성과를 인정받았다.

구강보건실과 치과실을 운영해 구강건강 인식 제고와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노인과 어린이 대상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해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를 강화했다.

광산구 "도심 속 쌍암공원서 더위 식히세요"

광주 광산구가 시민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쌍암공원에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문화공연도 연다.

최근 광산구는 쌍암공원에 '밤이 아름다운 공원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8억원을 들여 야간 경관 조명을 들이고, 시설 정비를 마쳤다.

본격적인 여름과 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광산구는, 쌍암공원을 도심 피서지로 꾸며 시민과 광주수영대회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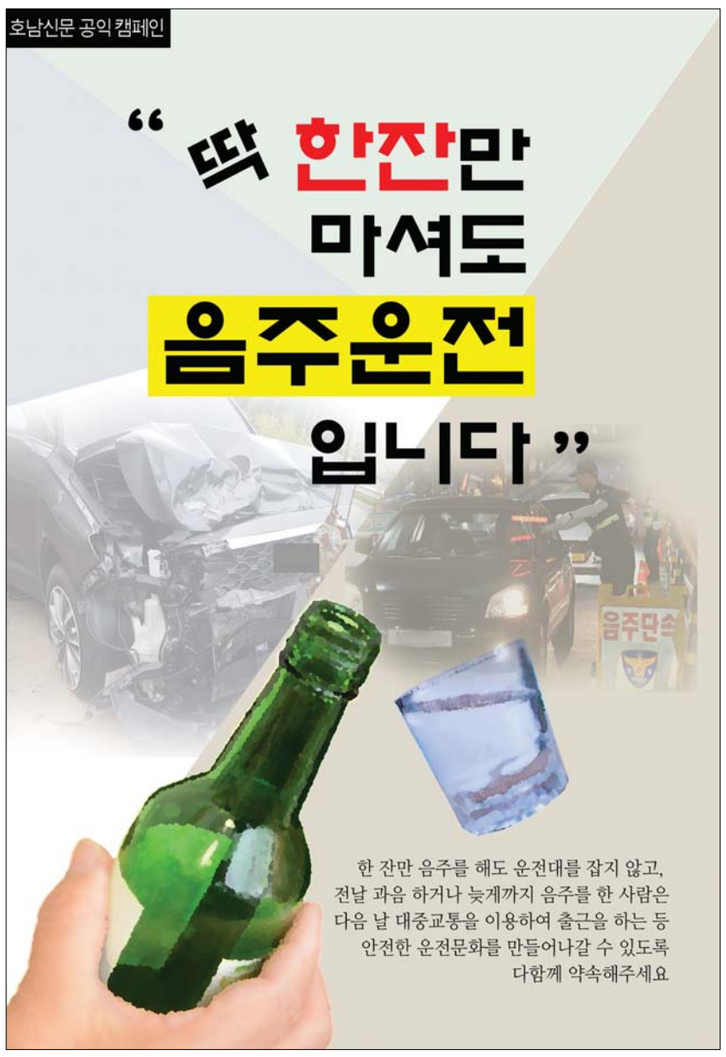
광산구는 정오~저녁 8시 40분 간격으로 바닥분수를, 오전10~오후6시 30분 단위로 호수 안의 수중분수를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 저감시설인 쿨링포그도 파고라 10곳에 설치해 공원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을 줄 예정이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